

[ Chapter One ]

p. 13

Aha!  
English

**She wanted to buy Jim something special.** 그녀는 짐에게 특별한 뭔가를 사주고 싶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보통 명사 앞에 와요. 하지만 -thing, -one 등으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는 형용사가 이들 명사 뒤에 와서 꾸며줘요.

ex. He deserved something grand. 그는 아주 멋진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p. 14

Aha!  
English

**She had the most beautiful hair of any woman.** 그녀는 어떤 여자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한/~하게'라는 뜻으로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보통 해당 형용사나 부사 뒤에 -est를 붙이지만, beautiful처럼 3음절 이상이면 그냥 앞에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나타내요. 이때 most 앞에 the를 쓰기도 하죠.

ex. It was her most precious possession.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p. 22

Aha!  
English

**I love you so much that I would do anything for you.** 나는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너무 ...해서 ~하다'라는 표현은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동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ex. She is so cute that many people like her. 그녀는 너무 귀여워서 많은 사람이 그녀를 좋아한다.

p. 26

Aha!  
English

**But these two young people were even wiser.** 그러나 이 두 젊은이는 훨씬 더 현명했다.

비교급을 꾸며줘서 '훨씬 더 ~한/~하게'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비교급 앞에 even, much, far, still, a lot 등을 쓰면 돼요.

ex. His idea was even better than hers. 그의 아이디어는 그녀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 Chapter Two ]

p. 31

Aha!  
English

**She smiled happily, showing her two false teeth.** 그녀는 의치 두 개를 보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원래 이 문장은 She smiled happily while she showed her two false teeth.예요. 미소 짓고 치아를 보여주는 행동을 동시에 하는 사람(주어)이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있는 접속사 while과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동사원형-ing로 바꾼 거예요. 이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ex. They held hands, smiling brightly.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다.

p. 32

Aha!  
English

**In walked a customer, a middle-aged man.** 중년의 한 남자 손님이 걸어 들어왔다.

원래 이 문장은 A customer, a middle-aged man walked in.이에요. 그런데,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부사 in을 문장 맨 앞에 쓴 거예요. 이럴 경우, 문장의 순서는 보통 '(강조하려는) 부사 + 동사 + 주어'가 돼요. 단, 주어가 인칭대명사일 때는 '부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써요.

ex. In rushed the girl with flowers. 꽃을 든 그 소녀가 달려 들어왔다.

p. 34

Aha!  
English

**It is so sad that he is too poor to buy my delicious breads and rolls.** 그가 너무 가난해서 나의 맛있는 빵과 롤을 살 수 없는 것이 너무 슬프다.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ex. It is too dark to play outside. 너무 어두워서 밖에서 놀 수 없다.

p. 36

Aha!  
English

**"I do love art," Miss Martha said.** “나는 예술을 정말 사랑해요.” 미스 마사가 말했다.

동사를 강조해서 ‘정말 ~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동사원형 앞에 do 동사를 써요. 이때 do는 주어와 상황에 따라 do, does, did 중에 골라 쓰면 돼요.

ex. I do love him. 나는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

p. 41

Aha!  
English

**As she watched him leave the bakery, she daydreamed again.** 그녀는 그가 빵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시 공상에 빠졌다.

‘보다(watch, see, look at), 듣다(hear, listen to), 느끼다(feel)’ 등과 같은 감각과 관련된 동사를 ‘감각동사’ 또는 ‘지각동사’라고 해요. 이런 동사가 올 경우에는 이 동사의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을 써서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요. ‘감각동사 + 목적어 + 동사원형’의 순서로요.

ex. She saw him enter the bakery. 그녀는 그가 빵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p. 47

Aha!  
English

**Here is how he works.** 이것이 그가 작업하는 방식이다.

how he works는 원래 How does he work?라는 의문문이 평서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단어의 순서가 ‘의문사(how) + 주어(he) + 동사(works)’로 바뀐 거예요.

ex. This bag is what she wants to buy. 이 가방이 그녀가 사고 싶어 하는 것이다.

## [ Chapter Three ]

p. 53

Aha!  
English

**This town was as flat as a cast iron griddle.** 이 소도시는 무쇠 번철만큼 평평했다.

‘...만큼 ~한’은 ‘as + 형용사 + as’로 나타낼 수 있어요.

ex. He is as handsome as his father. 그는 자기 아버지만큼 잘 생겼다.

p. 56

Aha!  
English

**That's going to cost his father an extra \$500.** 그것이 그의 아버지에게 추가로 500달러의 비용을 더 내게 할 것이다.

‘be going to + 동사원형’은 ‘~할 것이다[셈이다]’라는 뜻으로 미래의 계획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be going to는 미래 조동사인 will과 바꿔 쓸 수 있어요.

ex. Red Chief says he 's going to scalp me. 붉은 추장이 내 머리 가죽을 벗길 거라고 말한다.

p. 61

Aha!  
English

**Neither did I.** 나도 마찬가지였다.

앞에 나온 부정적인 상황과 같은 상황이거나 동의를 나타낼 때는 ‘neither + 동사 + 주어’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앞 상황의 동사가 일반동사일 때는 neither 다음에 do동사를 쓰는데, 시점과 뒤에 나오는 주어에 따라 do, does, did 중에서 골라 쓰면 돼요.

ex. He didn't like the movie and neither did I. 그는 그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p. 62

Aha!  
English

**I wanted to see if people were acting worried.** 나는 사람들이 걱정해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하는 중이다'라는 뜻으로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는 'be동사 + 동사원형-ing'로 표현해요. '~하는 중이었다'처럼 과거에 진행 중인 상황을 표현할 때는 be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의 주어는 people, 즉 복수라서 were가 쓰인 거예요.

ex. No one was looking for the boy. 아무도 그 소년을 찾고 있지 않았다.

p. 71

Aha!  
English

**You won't pass up this chance to get rid of him, will you?** 너는 그를 제거할 이 기회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앞에 말한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때는 문장 뒤에 '그렇지?'라고 묻는 말을 덧붙일 수 있는데, 이것을 '부가의문문'이라고 해요. 부가의문문은 '동사 + 주어?'로 쓰는데, 이때 동사는 앞 문장의 동사가 부정이면 긍정으로, 앞 동사가 긍정이면 부정으로 쓰면 돼요.

ex. He can't play the guitar, can he? 그는 기타를 못 친다, 그렇지?